

광주FC, 인천 제물로 '연패 탈출' 노린다

오늘 안방서 5라운드 맞대결
전방서 허율·베카 부활 절실
데뷔전 데뷔골 문민서 기대
무고사·제르소에 수비 관건



광주FC가 개막 2연승 후 2연패로 주춤한 가운데 인천유나이티드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광주 선수단은 지난달 31일 대구FC와 맞대결 후 3일 간격으로 두 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 일정 속에도 승점을 확보한 뒤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각오다.

광주는 3일 오후 7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 라운드 대구전에 이어 3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홈경기다.



광주FC 문민서가 지난달 3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 4라운드 홈경기에서 페널티킥 선제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의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지난달 17일 포항과 3라운드에서 경기 종료 직전 극장 골로 0-1 석패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대구와 4라운드에서는 선제골을 넣고도 끝내 역전을 허용하며 1-2로 패했다.

2연패에 빠진 광주는 올 시즌 2승2패(승점 6)로 4위에 머물러 있다. 1위 김천(승점 9·득점 8), 2위 포항(승점 9·득점 6)과 3점, 3위 울산(승점 8)과 2점차를 유지하고 있다.

3일 간격으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만 승리가 간절한 상황

이다. 시즌 초반부터 촘촘한 순위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연패가 이어지면 강등권 추락도 불가피하다.

광주가 유독 안방에서 인천에게 강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광주는 인천과 역대 28차례 맞대결에서 7승14무7패로 백중세를 이뤘지만 홈에서 5승7무2패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광주축구전용구장으로 홈구장을 옮긴 후 3승1무1패로 더 강했다.

이번 맞대결에서 공격 자원인 허율과 베카 미켈타제의 부활이 절실하다. 허율은 올 시즌 네 경기에 출장했지만 공격포인트가 없고 베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첫 출전했지만 위협적인 움직임 보이지 못했다. 이희균과 가브리엘, 이건희가 첫 득점을 올린 상황에서 가세한다면 자신감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성골 유사이자 데뷔전 데뷔골 주인공

문민서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광주FC U-12부터 U-15(광덕중), U-18(금호고)을 거쳐 프로에 입성한 첫 사례인 문민서는 지난 라운드에서 전반 추가시간 포함 50분을 누비며 투지와 끈기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였다.

전반 24분에는 이희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오승훈 골키퍼를 속인 침착한 슈팅으로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에 꽂아 넣

으며 구단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수비 조직력도 중요하다. 인천은 최전방에 스테판 무고사와 제르소라는 위협적인 투톱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가 최근 2연패에 빠진 동안 역습에 대한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언제나 인천이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다.

폴-조제 음포쿠와 이명주, 김도혁 등 중원에서 좋은 패스를 찢러 낼 수 있는 자원들이 갖춰져 있고 수비도 중앙에는 오반석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지만 마테이 요니치가 버티고 있고 측면에는 최우진과 정동운, 홍시후 등 기동력을 갖춘 자원들이 포진돼 있다.

수비에서 김진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는 지난 라운드 때 후반 교체 투입돼 19분만 출전하며 체력을 안배했다.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저돌적인 돌파가 돋보이며 인천 수비의 뒷공간을 역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이다.

중앙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는 안영규와 알렉스 포포비치도 견고한 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개막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안영규와 포포비치에게 무실점 경기가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달 31일 대구전을 마친 후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우리 수준을 인정하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에게 맞는 목표를 다시 설정하겠다"며 연패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 분노가 3일 만에 승리의 기쁨으로 바뀔 지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타이거즈 임기영이 지난달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 경기에서 구원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임기영 마저 부상 이탈

나성범·황대인 이어 3번째 좌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



'거포 듀오' 나성범과 황대인에 이어 이번에는 임기영이다. KIA 타이거즈가 개막 열흘 만에 외야수와 내야수에 이어 투수에서도 이탈자가 발생하며 지난해 부상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2일 KIA 타이거즈에 따르면 투수 임기영이 전날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실시한 결과 좌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을 진단받았다. 임기영은 1주일 뒤 재검을 받아 다시 상태를 확인한다.

임기영은 지난달 31일 두산과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3차전에 앞서 불펜 투구를 실시하던 중 왼쪽 옆구리에 불편함을 느꼈다. 이로 인해 휴식을 취했고 이후 1군 엔트리에서도 말소됐다.

KIA로서는 지난해의 부상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IA는 지난 시

즌 전 장현식과 나성범이 부상으로 개막 엔트리 합류가 불발된 상황에서 개막 후에도 김도영과 한승택, 김선빈, 변우혁, 황대인 등이 줄줄이 부상을 입으며 5위와 1경기 차이로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올해도 부상이 이어지고 있다. 시범경기에서 나성범이 주루 도중 우측 허벅지에 불편함을 느껴 교체된 뒤 정밀 검진 결과 햄스트링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고, 황대인도 지난달 27일 안타를 치고 주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는데 햄스트링에 피가 많이 고여 검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임기영은 세 번째다.

임기영은 지난해 64경기에서 82이닝을 소화하며 불펜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시범경기에서는 4경기 5이닝에서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했고, 정규 시즌 돌입 후에는 두 차례 등판에서 1.1이닝을 소화하며 무실점으로 1승을 챙겼다. **한규빈 기자**

광주장애인배드민턴, 세종시장배 겸 춘계대회서 금빛 스매싱

금 2·은 2·동 2개 등 6개 메달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선수들이 시즌 첫 전국대회인 '제3회 세종시장배 겸 춘계대회'에서 금빛 스매싱을 날리는 등 우수 성적을 거뒀다.

2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선수들이 지난달 30-31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인대륙대회 국가대표 이정수(전대사대부고·사진)는 SU5남자단식 결승전에서 국내랭킹 1위인 라이벌 김기연(서울의료원)을 세트스코어 2-



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정수는 풀리그로 진행된 SU5남자복식에서는 이수현과 조를 이뤄 2승 2패를 기록,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승후(월봉중)·황경일(한전KPS)과 조병만·김현달은 SL3&SL4남자복식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이승후·황경일 조가 결승서 팀 동료 조병만·김현달 조를 2-0으로 이겼다.

2024년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신인 선수로 선발된 이승후는 SL3남자단식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승후는 결승에서 주동재(서울의료원)에 1-2로 아쉽게

졌다.

황경일은 백은주와 호흡을 맞춘 SL3&SL4&SU5혼합복식 준결승에서 심우섭·제지은(충남) 조에 0-2로 패해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기홍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목송산업개발 총괄사장)은 "지난 겨울 광주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과 광주동구스포츠클럽 등의 지원으로 동계훈련을 묵묵히 소화한 선수들이 한층 발전된 기량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장애인체육회 등과 최고의 훈련 환경을 제공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체육중·고 배드민턴,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선전

금 1·은 1·동 4개 등 6개 수확
이운서·김민 여중 복식 2연패

광주체육중·고 배드민턴 선수단이 2024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 선전을 펼치며 우수 성적을 거뒀다.

광주체육중 배드민턴 선수단은 지난달 21-29일 경남 밀양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운서와 김민이 여중부 2학년 복식 결승에서 최가인·민채윤(양동중)을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운서와 김민은 지난해 1학년 복식 우



광주체육중 이운서와 김민. **광주체육 제공**

여서영은 여중부 3학년 단식 준결승에서 박민지(성지여중)에게 0-2로 져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중 배드민턴 선수단은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김나연이 여고부 1학년 단식 준결승에서 이태희(치악고)에 0-2로 져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김나연은 김민아와 함께 출전한 여고부 1학년 복식에서도 준결승서 김한비·인설아(창덕여고)에 0-2로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다.

이나라는 여고부 2학년 단식 준결승에서 이가현(전주성심여고)에 0-2로 고배를 마시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